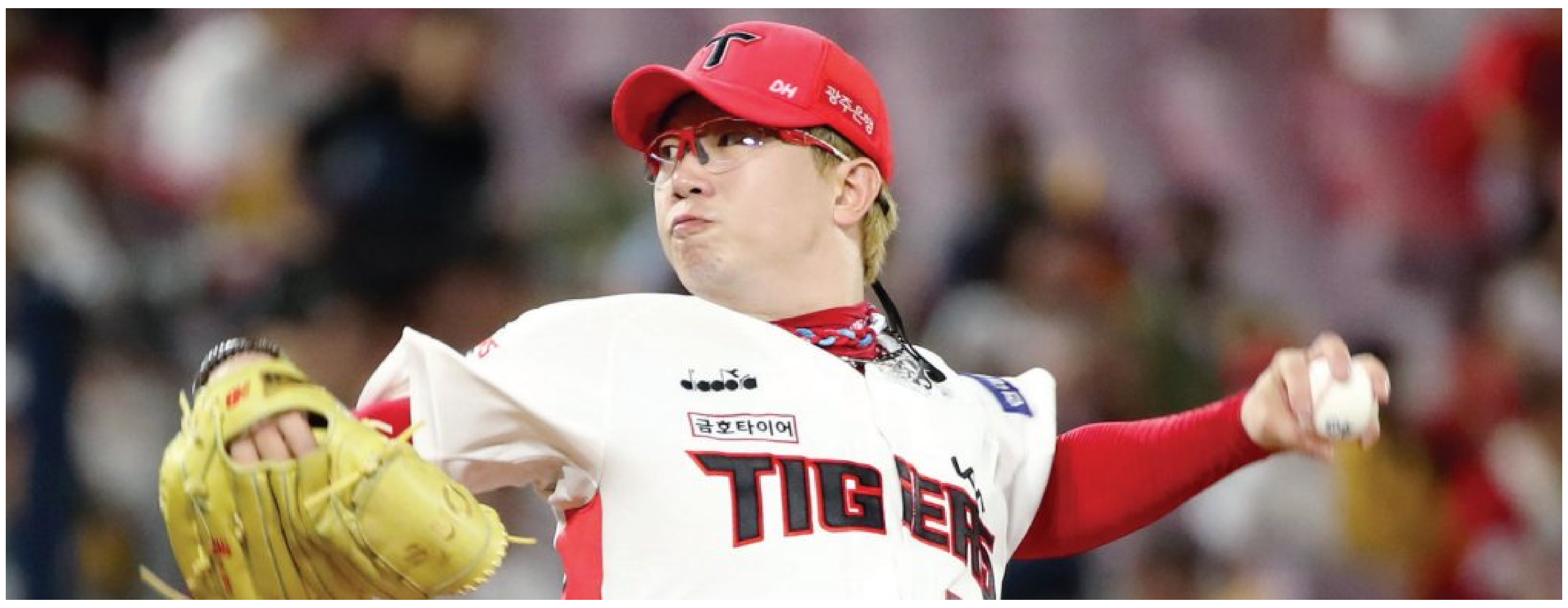
양현종·박세웅 '안경 에이스' 4번째 맞대결

타이거즈 전망대

부산 롯데·인천 SSG·서울 두산 KIA, 힘겨운 원정 6연전 치른다



향현종

박세웅

꺼져가는 순위 싸움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안경 에이스'의 4번째 맞대결이 펼쳐진다.

KIA 타이거즈가 6일 사직구장에서 원정 6연전 일정을 시작한다. 6·7일 롯데를 만나는 KIA는 이후 SSG·두산과 원정경기를 벌인다.

일단 사직에 눈길이 쏠린다. 순위 싸움에 제동이 걸린 KIA와 롯데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다.

5위 KIA는 비로 한 경기 쉬어간 지난주 2승 3패로 승률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 특히 4위 KT와의 경기에서 2패를 당하면서 충격이 컸다.

3일 경기에서는 토마스 파노니가 7이닝 무실점 호투에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4일에는 KT 선발 벤자민이 헤드샷으로 3회 갑자기 퇴장됐지만 마운드 공략에 실패했다. 이와 함께 KT는 8경기 차로 멀어졌다.

6위 롯데도 애가 타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주 3경기가 1점 차 패배로 끝났고, 2일 두산에 16-4 대승을 거둔 뒤 4일에는 LG에 1-14 대패를 기록했다.

승리보다 패배가 쌓이면서 5위 KIA와는 5경기 차.

KIA와 롯데 모두 순위 상승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만큼 뜨거운 9월을 보내야 한다.

양현종과 박세웅이 불씨 살리기에 나선다. 올 시즌 벌써 4번째 대결이다.

두 사람은 4월 14일 처음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서 시즌 첫 맞대결을 벌였다. 이날 경기는 3-2 롯데의 승리로 끝났고, 박세웅(5이닝 2실점·1자책점)이 승리투수가 됐다. 양현종(6이닝 3실점)은 패전투수가 됐다.

6월 23일 광주에서 전개된 두 번째 맞대결에서 두 사람은 승패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박세웅이 6이닝 2실점을 기록하면서, 6이닝 4실점의 양현종에 판정승은 거뒀지만 경기는 KIA의 7-4 승리로 끝났다.

한 달 뒤 사직에서 세 번째 대결이 펼쳐졌고, 이 경기에서 양현종(6.1이닝 3실점)과 박세웅(6이닝 3실점)은 모두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했다. 그리고 장단 20안타를 터트린 타선의 지원 속에 양현종이 9-3 경기의 승리투수가 됐고, 박세웅은 패배를 떠안았다.

'안경 에이스'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마운드, 타석에서는 나성범에 눈길이 쏠린다.

나성범은 기록을 채워가는 한 주를 보내게 된다.

나성범이 6일 롯데와의 원정경기에 나서면 KBO리그 통산 111번째 1200경기 출장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7차례 홈에 들어오면 900득점이 채워진다. 통산 28번째 기록이다.

3시즌 연속 150안타 기록(통산 20번째)도 눈앞에 보인다. 나성범은 올 시즌 118경기에 나와 146개의 안타를 기록하고 있다.

박찬호의 KIA 유일 '타이틀 홀더' 도전도 이어진다.

박찬호는 지난주 5경기에서 3차례 베이스를 훔치면서 33도루를 기록하고 있다. 도루 1위인 키움 김혜성(34개)을 1개 차로 따라잡았다.

'도루왕' 경쟁이 기대됐지만 김혜성이 지난 3일 SSG와의 경기에서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박찬호의 독주가 예상된다. 현재 도루 3위는 삼성 김지찬으로 23개에 머물고 있다.

도루 1위로 KBO 시상대에 올랐던 2019년 박찬호는 39개의 도루를 기록했었다. 박찬호가 뜨거운 주루로 기복 많은 KIA 타선에 힘을 보태며 두 번째 도루왕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I 페퍼스, 몽골 출신 어르헝 우선 지명

신장 194.5㎝ 미들브로커 염혜선 선수의 부모가 입양 목포여상에서 선수 생활 김형실 감독 "장래 보고 선발"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프로배구 2022-2023 KOVO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순위로 페퍼저축은행의 지명을 받은 목포여상의 체웬랍당 어르헝 선수가 김형실 감독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귀화를 추진 중인 몽골 출신 체웬랍당 어르헝(18·목포여상)이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우선 지명으로 AI페퍼스 유니폼을 입었다.

어르헝은 5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2-2023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참가 49명 중 가장 먼저 AI페퍼스의 부름을 받았다.

김형실 감독은 "일찍부터 주목해온 선수다. 현재로서는 즉시 전력감으로 쓸수 있는 기량은 아니다"면서도 "연고지 출신이라는 점과 장래를 보고 뽑은 선수"라고 말했다. 미들블로커인 어르헝은 장기적으로 페퍼스의 높이를 보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어르헝은 귀화 선수로서 드래프트를 신청한 선수 또는 귀화 신청 후 귀화 승인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전 구단의 동의로 귀화 절차 중인 선수는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는 배구연맹 규약에 따라 이날 드래프트에 나왔다.

2004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태어난 어르헝은 2019년 한국에 와 2021년 한국인 부모에게 입양됐다.

KGC인삼공사의 주전 세터인 염혜선(31)의 부모가 어르헝을 입양해 '염어르헝'으로 불린다.

키 194.5㎝의 어르헝이 우리나라 국적을 획득하면 앞으로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에서 부동의 미들 블로커로 활약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는다.

어르헝은 이로써 현재 KGC인삼공사에서 뛰는 미들 블로커 이영(26)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귀화를 추진 중인 상태에서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은 선수가 됐다.

중국 지린성 연길 출신의 재중동포 이영은 한국 선교사의 권유로 배구를 접해 중학교 2학년 때인 2010년 혈혈단신으로 한국 땅을 밟았고, 2014-2015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6순위로 GS칼텍스의 유니폼을 입었다.

AI페퍼스는 1라운드 3순위로 아웃사이드 히터 이민서(19·선명여고)도 낙점했다.

김 감독은 "향후 전력보강에서 라이트를 뽑을 생각이기 때문에 왼손잡이인 이민서를 지명했다. 외국인 선수 니아리드가 컨디션이 안 좋을 경우를 대비한 선택이다. 이제 하혜진(아포짓·라이트)은 센터만 뛰면 된다"고 설명했다.

AI페퍼스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선수 2명만을 선발했다. FA시장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김 감독은 "현재 선수단이 포화상태다. 한 선수를 뽑으면 다른 선수가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내년 FA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선수를 지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드래프트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이 1라운드 1순위 우선 지명권을 행사하고, 이후 구슬 추첨 확률에 따라 흥국생명, 페퍼저축은행, KGC인삼공사, IBK기업은행, GS칼텍스, 한국도로공사 순으로 1라운드 2~7순위 선수를 지명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손흥민·김민재 UEFA 챔스 무대 선다

토트넘, 8일 마르세유와 조별리그 나폴리는 리버풀 상대 1차전 치러

아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마수걸이 득점을 올리지 못한 손흥민(토트넘)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무대에서 시즌 첫 골 사냥에 나선다.

토트넘은 8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4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마르세유(프랑스)를 상대로 2022-2023시즌 UCL 조별리그 D조 1차전을 치른다.

지난 시즌 EPL에서 23골을 넣어 리그 공동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올 시즌 좀처럼 득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말 열린 EPL 6라운드까지 득점 없이 1도움을 올리는 데 그치고 있다.

상대 수비진의 집중 견제 대상이 된 탓이 크다. 여기에 새 시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축구와 손흥민의 경기 스타일이 미묘하게 안 들어맞는 점도 손흥민을 불편하게 하는 모양새다.

손흥민은 6라운드 풀럼전에서 득점은 못 했으나 크로스바를 맞추는 등 한결 예리해진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번 UCL 첫 상대 마르세유는 올 시즌 프랑스 리그1에서 최소 실점(3골)을 기록할 정도로 탄탄한 수비를 자랑하는 팀이어서 득점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손흥민과 토트넘에는 3시즌만의 '유럽 최고 무대' 복귀전이기도 하다.

토트넘은 2019-2020시즌 16강을 끝으로 UCL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2020-2021시즌은 2부 리그 격인 유로파리그(UEL), 2021-2022시즌은 그보다 아래인 유로파 콘퍼런스리그(UECL)에서 경쟁했는데, 지난 시즌 극적으로 EPL 4위에 오르면서 다시 UCL로 돌아오게 됐다.

토트넘은 마르세유, 스포르팅 리스본(포르투갈), 프랑크푸르트(독일)와 한 조로 묶였다. 비교적 수월한 조 편성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중 리그1 준우승팀인 마르세유만큼은 까다로운 상대로 꼽힌다.

'괴물 수비수' 김민재(나폴리)는 UCL 데뷔전을 치른다.

나폴리도 같은 날 오전 4시 홈인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스타디움으로 리버풀(잉글랜드)을 불러들여 A조 1차전을 치른다.

올여름 나폴리에 입단한 김민재는 완벽에 가까운 수비력에 공격력까지 뽐내며 전 유럽이 주목하는 수비수로 떠오르고 있다. 세리에A 5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 머리로만 2골을 터뜨려 팀의 '무패(3승 2무) 선두'에 핵심 역할을 했다.

김민재에게 강호 리버풀을 상대로 치르는 이번 경기는 자신의 가치를 드높일 좋은 기회다.

리버풀에는 현시대 최고 수비수로 꼽히는 버질 판데이크가 버티고 있다. 김민재와 판데이크 중 누가 더 완벽한 수비로 상대 공격진을 괴롭힐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LPGA 다나오픈 한국 선수들 부진 … 김세영 공동 13위

김세영과 김효주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다나오픈(총상금 175만 달러)에서 나란히 공동 13위에 올랐다.

김세영은 5일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스 골프클럽(파71·655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로 1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72타를 기록한 김세영은 김효주, 브룩 헨더슨(캐나다)과 함께 공동 13위로 대회를 마쳤다.

3라운드까지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4위였던 김세영은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 역전 우승까지 노릴 수 있었지만 1타를 줄이는 데 그쳐 순위가 오히려 밀렸다.

김세영은 "우승 기회가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거리나 방향성이 안 좋았다"며 "이번 시즌 우승이 없는데 준비를 잘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효주는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몰아치고 타수를 줄여 순위를 전날 33위에서 공동 13위로 끌어올렸다.

6월 말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이후 미국에서 열린 대회에 처음 출전한 김효주는 "오랜만에 미국 대회에 나와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끝내 좋은 경기를 한 것 같다. 다음 경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승은 최종합계 18언더파 266타의 성적을 낸 가비 로페스(멕시코) 차지가 됐다.

3라운드까지 11위로 10위권 밖에 있던 로페스는 이날 버디 8개로 8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둘렀다. 특히 마지막 16~18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낚아 2위 메건 강(미국)을 1타 차로 제쳤다. 특히 마지막 17, 18번 홀에서는 공이 연달아 벙커에 들어가고도 버디를 잡아내는 뒷심을 발휘했다.

우승 상금 26만2천500 달러(약 3억5000만원)를 받은 로페스는 2020년 1월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스 토너먼트 이후 2년 8개월 만에 투어 통산 3승을 달성했다.

3라운드까지 1타 차 선두를 달린 루시 리(미국)는 한 타만 줄여 15언더파 269타, 공동 4위가 되며 1위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연합뉴스